

주간
프레스시안



The Weekly Pressian View

2015년

1월 29일 발행

NO. 72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83 (2005.10.12) 발행인 박인규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
대표전화 02-722-8494

Copyright ©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



한 주를 닫으며	3
임경구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1
박인규의 지구촌 분석	15
하승수의 생태기행	22

*표지 사진

“내가 해 봐서 아는데”를 입버릇처럼 말하던 MB가 대통령으로 정말 “해 봐서 아는” 경험을 살려 회고록을 냈다. 1월 29일 일부가 공개된 <대통령의 시간>(알에이치코리아 펴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미 쇄고기 협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높”였다.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성 지원은 할 수 없”어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거절했으며 “조용한 외교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독도를 방문했다. 대통령 퇴임 후에도 국민을 상대로 ‘퍼펙트 게임’을 즐기는 MB, 그의 만용(蠻勇)이 웃프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PDF가 열려 링크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PDF 화면에서 하단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PDF 콘솔창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창이 열립니다. 원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한 뒤 PDF 뷰어로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시면 링크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박인규
(프레시안 협동조합 이사장)

그리스 총선이 뜻하는 것

집권 만 2년이 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행보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년 반 동안의 토론 끝에 만들어낸 건강보험 개편안을 일거에 백지화시키는가 하면,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에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들을 원소속 부서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서 최근 연말정산, 의료보험 개편 논란까지 이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처리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 지지율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최근 20퍼센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에서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70년대 유신 시절 사고방식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다스리려 하니 될 턱이 없습니다.

야당 쪽을 돌아봐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비서실장들이 야당의 당권을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등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정치를 원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야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입니다.

현지시간으로 1월 25일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40세의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시리자’가 승리했습니다. 2004년 생태주의와 공산주의 세력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출범한 시리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 국민들에게 극한적 고통을 안겨줬던 국제금융세력의 긴축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정권 장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35세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이끄는 스페인의 정치세력 포데모스도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말 치러질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비롯해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세대’로 불릴 만큼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과연 지금 여야의 기존 정치인들이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의심



박인규
(프레시안 협동조합 이사장)

스럽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수십 년째 여의도와 청와대에 틀어박혀 1970~80년대의 정치적 감수성에 머물러 있는 기존 정치인들이 이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낡은 정치질서에 매달려 기득권을 누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의 쇄신을 위해서는 정치 주체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현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젊고 참신한 정치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전면적 세대 교체, 그리스 총선은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레시안 언론협동조합 이사장
박인규 드림

<정치>

1월 23일(금요일)

-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 문고리 비서관들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선에 그쳐 민심과 동떨어진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1.23 새 국무총리에 이완구,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

(1.23 '각하' 발언 이완구, "쓴소리 총리" 될 수 있을까?)

-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조기 차출'이 새누리당 차기 원내대표 경쟁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당초 5월께 열릴 것으로 보고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 온 이주영, 유승민 의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가늠하게 한다는 면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유승민 vs 이주영 구도...당청 관계 분수령)

1월 25일(일요일)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언론인, 의료인 또는 어떤 관계자든 앞에서 어떤 조치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공개 검증을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25 이완구 "아들 병역 문제, 필요하다면 공개 검증")

-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서민 증세'를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파문이 일고 있다.

(1.25 정중섭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내가 십자가 지겠다")

1월 26일(월요일)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1월 3주차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퍼센트(%)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역대 최저치 기록이다. 지지율 하락은 영남권과 50대 이상 연령층 등 박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1.26 박 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콘크리트' 균열)

-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의 여파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1.26 박대통령 "연말정산 국민들께 불편 끼쳐 유감")